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김민호**

조민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빈곤 노인의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빈곤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빈곤과 관련된 이론 축적에 기여하고, 노년기 빈곤 진입을 완화·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노인의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당사자인 빈곤 노인과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를 수행했다. 인터뷰 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로부터 빈곤 노인 유형을 도출한 뒤, 각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노인을 선별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 가부장제 사회 기조로 인해 교육과 직업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배우자 리스크—경제 무능력, 이혼, 사별—와 가계 경제 곤란의 이유로 매우 늦은 나이에 저숙련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함과 동시에 소득의 급격한 하락과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에 진입하게 된다. 남성 빈곤 노인의 경우,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첫 직장 이후 몇 군데의 직장을 거쳐 노동시장 전성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질병, 재해,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고,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소득의 급격한 하락과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에 진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빈곤 노인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빈곤 간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노인, 빈곤, 노동시장 이행, 혼합방법론]

I. 서론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45.7%; OECD, 2015),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58.6명; KOSIS, 2015), 유례 없이 신속한 고령화 속도 등이 보여 주듯이, 우리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장된 수명, 가족 책임주의 완화와 사적 부양의 축소, 공적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공공부조 제도의 제한성으로 인해 다수의 빈곤 노인 계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배성우 외, 2008).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832). 이 논문은 김민호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지방공무원. 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이 가운데 노인 빈곤의 '경로 의존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 전에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했던 노인은 빈곤 진입 가능성이 낮은 반면, 최종 직종이 비숙련 노동자였던 노인은 빈곤 진입 가능성이 높다. 은퇴 이전의 과거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인 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김현수, 2012). 이에 따라 안정된 고용 경력 이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소수의 노인 집단이 있는 반면, 불안정한 고용 환경 이후 사회보험 혜택에서 배제된 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빈곤 노인 집단이 존재하기도 한다(박경숙, 2003). 한편으로는 퇴직 이후 질병과 장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빈곤 노인 집단도 존재한다. 따라서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노년기 시점만을 고찰하거나 노년기 시점만을 시간적 대상으로 하여 정책 처방을 내리려 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인들이 빈곤에 진입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애사적 관점에서 이들의 생애 전체 과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 빈곤의 양상에 있어 이처럼 일평생의 직업과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빈곤 노인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빈곤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희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빈곤 노인이 일평생 걸어 온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어떤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거쳤을 때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삼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 빈곤 노인과 이들의 생애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귀납적·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빈곤 노인의 생애 노동시장 이행 양상, 과정, 현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빈곤 노인의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빈곤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빈곤과 관련된 이론 축적에 기여하고, 노년기 빈곤 진입을 완화·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논의

1. 노인 빈곤

일반적으로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또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된다. 그러나 기본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학자들은 빈곤을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주관적 빈곤(subjective poverty)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김교성 외, 2008). 이 가운데, 상대적 빈곤은 사회 내 전체 구성원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빈곤 여부를 규정한다는 점, 다수 인구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생활 수준에 부합하는 빈곤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장점이 있다. OECD는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초하여 회원국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며, 가구 균등화된 경상

소득 기준의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한다.

학자들은 빈곤 인구 중에서도 대체로 사회적 비용이 높은 빈곤한 노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노인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는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노인 빈곤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가구원 수, 자산, 거주지역과 함께, 노년기의 노동시장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최현수·류연규, 2003; 김수완·조유미, 2006; 박능후·송미영, 2006; 배성우 외, 2008; 유경근·곽중형, 2014; 민연경·이명석, 2014).

또한 은퇴 이전의 과거 직종과 고용형태 역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시장 전성기에 저숙련 노동, 비정규직에 종사했던 이들은 노년기에도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로써, 노인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은퇴 이후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적인 생애사적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김현수, 2012). 이에 따르면 빈곤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참여 형태 및 지속성 등과 관련이 높다. 따라서 노인 개인의 빈곤한 현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소득만을 고려하는 빈곤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충분한 금융재산이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소득이 없다면 그를 빈곤층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윤석명 외(2017)는 소득, 자산, 주거 등 3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분석했는데, 소득 기준의 빈곤율이 약 46%인 반면, 3가지 차원에서 모두 빈곤한 노인 빈곤율은 약 21%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빈곤층을 분류한다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노동시장 이행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이행(勞動市場 移行; labor market transitions)’이라 함은, 노동시장에서 지위, 상태, 직장, 근로조건 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Schmid(1998)는 개인의 노동력 상태의 이행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교육훈련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다양한 고용형태로의 이행,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출산·육아·돌봄 등 가사 의무로부터 취업으로의 이행, 취업에서 장애·질병·퇴직으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이행은 이 다섯 가지 유형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산업이 분화되고 노동 유연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교육훈련→취업→퇴직’으로 이어지는 과거 전통적인 노동시장 이행 경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다. 취업과 실업만을 중점적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관점보다도 포괄적인 시각을 갖는다.

서론에서 노인 빈곤의 ‘경로 의존적 경향’에 대해 언급했는데, 생애 주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였던 노인과 그렇지 않았던 노인의 노후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론이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김현수, 2012). 한국의 연금제도가 남성 중심의 정규 고용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역 시절에는 짧은 고용기간과

낮은 임금 수준을 조건으로 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노후에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직종, 고용형태, 근로기간 등 과거의 직업력을 독립변수로 삼고, 현재의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는 양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3. 선행연구 검토

1)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다수의 양적 연구(김학주·우경숙, 2004; 문영미, 2004; 윤형호·김성준, 2007; 박예은·정영순, 2016)는 취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탐색하는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과 같은 개인 요인, 가구 내 지위, 부양가족 수, 주거형태, 가구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과 같은 가구 요인, 직종, 경력, 자격증, 직업훈련, 구직활동, 고용형태와 같은 직업적 요인 등이 고령자의 취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건강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을 이수할수록, 기능·기술·자격증이 있을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노인의 퇴직 후 시점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한 연구가 희소하게나마 존재한다(김미혜 외, 2008; 송인주, 2008; 이윤진 외, 2013). 실업에서 재취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취업 후 직무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한국 노인들은 일할 의지가 높고, 일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이미 현역 시절과는 다른 처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구직활동을 벌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대우에 좌절과 수치를 느낀다. 재취업 후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작업 지시자, 근무여건 등 직업 환경 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한 번 더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재사회화의 과정을 밟는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나는 연속적 과정으로 인식하여 고령자의 퇴직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유형화한 연구가 존재한다(홍백의·김혜연, 2010; 박경하, 2011). 홍백의·김혜연(2010)은 퇴직을 경험한 남성들의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노동시장 이행 과정의 유형화를 시도하여, 8개의 유형을 도출해 냈다. 이 가운데, ‘지속근로자형’과 ‘장기지속근로자형’은 퇴직 후에도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임금과 연금소득이 낮은 근로자 유형으로서, 현재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박경하(2011)는 경제활동상태와 연금수급 상태의 조합으로 5개의 유형을 도출해 냈다. 이 가운데, ‘주변적 경제활동형’은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연금 수급이 조합된 유형으로서, 현재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험과 취업 후 직무 과정에서의 경험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퇴직 후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유형화하는 데 그친다. 연구 대상자로서 빈곤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빈곤 노인의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한 질적 연구는 축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노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빈곤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근로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일자리와 근로소득이 있을 때 빈곤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최현수·류연규, 2003; 김수완·조유미, 2006; 박능후·송미영, 2006; 배성우 외, 2008; 유경근·곽종형, 2014; 민연경·이명석, 2014). 한편으로는, 은퇴 이전의 과거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노인 빈곤의 문제가 단순히 은퇴 이후 시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적인 생애사적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박경숙, 2001; 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석상훈·김현수, 2012; 박예은·정영순, 2016).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 일부는 2008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으로 현실에서 제도화되기도 했다.

노동시장의 중심 연령기에 종사했던 생애 주된 일자리가 개인의 노후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에 있어 생애 전체의 노동시장 경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범위를 개인의 일평생으로 확장하는 연구는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즉, 과거 노동시장 전성기 시점의 생애 주된 일자리 혹은 퇴직 이후 시점의 현재 경제활동상태와 같이 특정한 시점에서의 저장(貯量; stock) 개념의 독립변수로 빈곤 여부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노인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있어 청년, 중·고령,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아우르는 유량(流量; flow) 개념의 독립변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유량 개념의 변수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한정적인 점, 특히 노동과 일자리의 질이 빈곤 진입과 탈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과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고령자와 노인이 아닌,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빈곤 노인으로 연구 대상을 좁혀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살펴본 연구 역시 축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생애사적 관점으로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보다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빈곤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일평생에 있었던 노동시장 이행의 과정, 양상, 현실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빈곤 노인의 생애 노동시장 이행 양상, 과정, 현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귀납적·질적 분석 방법을 수행한다. 이때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분석에 앞서, 한국 빈곤 노인 집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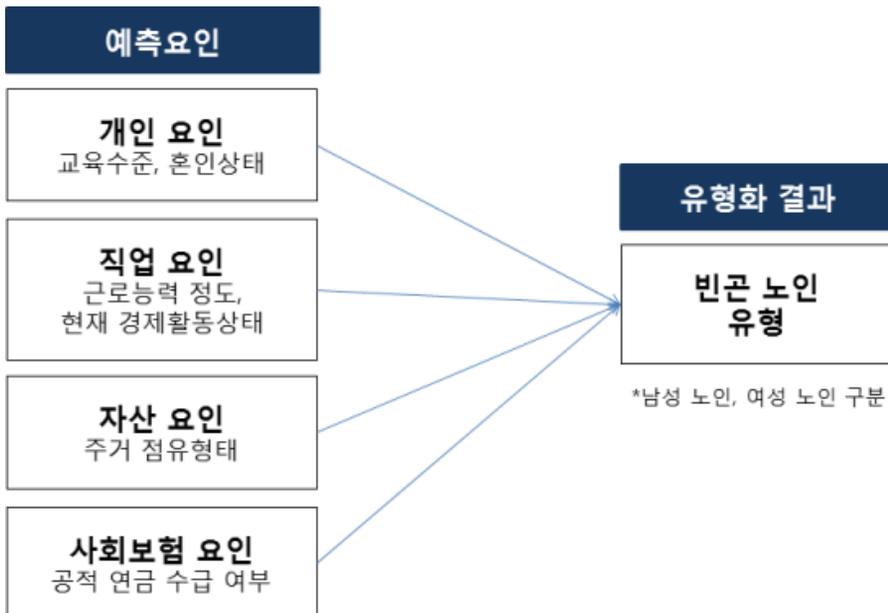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군집분석(群集分析)을 수행한다(남궁근, 2013). 즉, 1단계 분석에서는 빈곤 노인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며, 2단계 분석에서는 1단계 분석에서 도출된 각 유형에 소속된 대상자를 인터뷰하는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

2. 연구 방법

1) 1단계 분석: 빈곤 노인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

빈곤 노인을 유형화하기 위해 1단계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여성 노인들이 한국의 모든 빈곤 집단 중 특별하게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최희경, 2005)을 감안하여,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을 구분하여 유형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노인의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한 선행연구의 변수를 참고하여 빈곤 노인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홍백의, 2005; 배성우 외, 2008; 유경근·곽종형, 2014), 배우자가 없을수록(최선화, 1999; 최희경, 2005; 최옥금, 2007) 빈곤 위험이 높아진다. 건강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민연경·이명석, 2014) 한 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낮아진다. 일자리와 근로소득이 있을수록(최현수·류연규, 2003; 김수완·조유미, 2006; 배성우 외, 2008; 유경근·곽종형, 2014; 민연경·이명석, 2014), 주택을 소유할수록(유경근·곽종형, 2014), 공적 연금을 수급할수록(김수완·조유미, 2006; 배성우 외, 2008) 빈곤 위험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빈곤에 진입하게 되는 예측요인으로 교육수준, 혼인상태, 근로능력 정도, 현재 경제활동상태, 주거 점유형태, 공적 연금 수급 여부를 선정했다. 빈곤 노인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의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그림 1> 빈곤 노인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 모형



〈표 1〉 빈곤 노인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 모형의 측정도구

| 구분 | | 변수 | 변수 설명 |
|----------|--------|-------------|---|
| 유형화 결과 | | 빈곤 노인 유형 | 예측요인에 의해 도출되는 빈곤 노인의 유형 |
| 예측 요인 | 개인요인 | 교육수준 | 무학,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전문대학 이상(4) |
| | | 혼인상태 | 有배우자 外(1), 有배우자(2) |
| | 직업요인 | 근로능력 정도 | 근로 무능력(1), 근로능력 미약(2), 단순근로 가능(3), 근로 가능(4) |
| | | 현재 경제활동상태 | 비경제활동,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1) / 임시·일용직, 정부 제공 일자리(2) / 자영업자, 상용직, 고용주(3) |
| | 자산요인 | 주거 점유형태 | 기타(1), 월세(2), 전세(3), 자가(4) |
| | 사회보험요인 | 공적 연금 수급 여부 | 공적 연금 미수급(1), 공적 연금 수급(2) |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여러 예측 요인들 중에서도 ‘현재 경제활동상태’와 ‘주거 점유형태’가 주요한 분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론했다. 두 요인은 노인 빈곤에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서 해당 노인의 분포가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것이다. 즉, 건강이 허락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빈곤 노인이 있는 한편,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는 빈곤 노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자가와 전셋집에 거주하여 상대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 있으면서 높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빈곤 노인이 있는 한편, 월세와 기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여 주거가 불안정하면서 낮은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빈곤 노인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성별마다 네 가지 빈곤 노인 유형을 도출했다.

2) 2단계 분석: 빈곤 노인의 생애 전체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질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빈곤 노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생애과정 전체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개인의 체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빈곤 노인의 생애 구술(narrative)을 질적 자료로 수집한 뒤, 현상학적 방법(現象學的方法)을 활용하여 한국 노인들의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경험,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 경험, 빈곤에 진입하게 되는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에 관한 현상의 본질과 구조를 제시하는, ‘복합적 기술(記述)’을 작성(Creswell, 2017)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빈곤 노인 1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대일 대면으로 짧게는 50분, 길게는 1시간 50분가량의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대상자의 대다수인 10명의 인터뷰가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주요한 노동시장 이행기를 중심으로 작성된 반구조화(semi-structured) 설문지를 준비하여 인터뷰 대상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했다. 구술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노동시장 이행기와 더불어, 개인적인 생애 중요 사건, 국내 또는 국외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 정책, 복지 사각지대 등의 영향 요인을 반구조화 설문지에 추가로 수록했다. 이로

써 특수하고 고유한 현대사를 경험한 한국 노인들의 빈곤 진입 맥락을 보다 충실하게 탐색하며, 정부에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했다.

3. 자료 수집과 표본 추출

1) 1단계 양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한국의 빈곤 노인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을 위한 양적 데이터로, 본 연구는 2016년의 정보를 2017년에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WePS) 제12차 자료를 활용했다. 제12차 자료는 총 6,581 가구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는 총 3,129가구이다. 이 가운데 이상치(outlier)가 기재된 2개 가구를 제외했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가구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을 빈곤가구로, 중위소득 60% 이상을 일반가구로 규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가구는 2,143가구, 非빈곤가구는 984가구가 된다. 이 빈곤가구 2,143가구가 군집분석의 최종 대상이 되는 집단이다. 여성 빈곤 노인은 1,209가구, 남성 빈곤 노인은 934가구이다.

2) 2단계 질적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과 표본 추출

2단계 질적 분석 단계에서는 1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빈곤 노인의 각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표본 추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빈곤 노인 개인과 그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복지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는 노인복지관 관계자,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역 지부 관계자와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각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를 소개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이로써 1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형에 의거하여, 각 유형에 해당되면서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대상자 총 12명(여성 노인 6명, 남성 노인 6명)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구술된 생애사를 질적 자료로 수집했다.

IV. 분석 결과

1. 1단계 분석: 빈곤 노인 가구 군집분석 결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현재 경제활동상태’와 ‘주거 점유형태’가 주요한 분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론했다. 따라서 이 추론이 타당하다면 군집분석 결과는, 자산규모(+), 경제활동(+), I 유형, 자산규모(+), 경제활동(-)의 II 유형, 자산규모(-), 경제활동(+), III 유형, 자산규모(-), 경제활동(-)의 IV 유형이 도출될 것이다.

여성 빈곤 노인 가구 K-평균 군집분석 유형화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류된 4개 유형을 각 유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고학력 비경제활동 유형, 기타 주거¹⁾ 임시·일용직 유형, 기타 주거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명명했다.

각 유형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은 주택을 소유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유형이다(Ⅱ유형). 둘째, 고학력 비경제활동 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 자본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유형이다(Ⅱ유형). 셋째, 기타 주거 임시·일용직 유형은 자산은 부족하지만, 근로능력과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획득하고 있는 유형이다(Ⅲ유형). 넷째, 기타 주거 비경제활동 유형은 자산이 부족하고, 특히 건강이 나빠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매우 취약한 유형이다(Ⅳ유형). 여성 빈곤 노인 가구의 군집분석 결과에서는 앞선 추론과는 달리, 빈곤 노인층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환경이 좋은 I 유형이 도출되지 않았다.

<표 2> 여성 빈곤 노인 가구 군집분석 결과

| 구분 N=1,209(100%) |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N=551(45.6%) | 고학력 비경제활동 유형 N=79(6.5%) | 기타 주거 임시·일용직 유형 N=231(19.1%) | 기타 주거 비경제활동 유형 N=348(28.8%) |
|---------------------|-----------------------------------|-------------------------------|------------------------------------|-----------------------------------|
| 혼인상태 | 有배우자 外 | | | |
| 공적 연금 수급 여부 | 공적 연금 미수급 | | | |
| 교육수준 | 무학, 초등학교 | 고등학교 | 무학, 초등학교 | 무학, 초등학교 |
| 근로능력 정도 | 단순근로 가능 | 단순근로 가능 | 근로 가능 | 근로능력 미약 |
| 경제활동상태 | 비경제활동,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비경제활동,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임시·일용직, 정부 제공 일자리 | 비경제활동,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기타 | 기타 |
| 특성 | 자산규모(+) 경제활동(-) | 교육수준(+) 경제활동(-) | 자산규모(-) 경제활동(+) | 자산규모(-) 경제활동(-) |

남성 빈곤 노인 가구 K-평균 군집분석 유형화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류된 4개 유형을 각 유형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가 소유 자영업자 유형,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월세 임차 임시·일용직 유형, 월세 임차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명명했다. 자산(주거 점유형태)과 경제활동상태(근로능력 정도)가 이들 유형을 구분하는 중심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유형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자가 소유 자영업자 유형은 자산과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능력과 건강상태가 좋으며, 자영업을 경영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이다(I 유형). 둘째,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은 비교적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유형이다(Ⅱ유형). 셋째, 월세

1) 무상으로 주택에 사는 경우, 주택 소유주가 가구원이 아닌 가족인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주택이나 관사에 사는 경우 등.

임차 임시·일용직 유형은 비교적 좋은 건강과 근로능력을 가져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반면, 그 외의 인적 자본과 자산 규모는 부족한 유형이다(Ⅲ유형). 넷째, 월세 임차 비경제활동 유형은 자산 규모가 작으면서도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유형이다(Ⅳ유형).

남성 빈곤 노인 가구의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I 유형이 도출되지 않은 여성 빈곤 노인 가구와는 달리 4개 유형이 모두 도출되어 상대적으로 빈곤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가 소유 가구도 남성 빈곤 노인 가구는 총 표본의 69.4%를 차지한 반면, 여성 빈곤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45.6%에 불과했다. 또한, 남성 빈곤 노인 가구와는 달리 여성 빈곤 노인 가구의 모든 유형이 有배우자 外의 혼인상태와 연금 미수급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여성 노인 특유의 취약성이 군집분석 결과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남성 빈곤 노인 가구 군집분석 결과

| 구분 N=934(100%) | 자가 소유 자영업자 유형 N=261(27.9%) |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N=388(41.5%) | 월세 임차 임시·일용직 유형 N=152(16.3%) | 월세 임차 비경제활동 유형 N=133(14.2%) |
|-------------------|----------------------------------|-----------------------------------|------------------------------------|-----------------------------------|
| 혼인상태 | 有배우자 | | | |
| 교육수준 | 중학교 | 중학교 | 무학, 초등학교 | 중학교 |
| 근로능력 정도 | 근로 가능 | 단순근로 가능 | 근로 가능 | 단순근로 가능 |
| 경제활동상태 | 자영업자, 상용직, 고용주 | 비경제활동,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임시·일용직, 정부 제공 일자리 | 비경제활동, 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 주거 점유형태 | 자가 | 자가 | 월세 | 월세 |
| 공적 연금 수급 여부 | 수급 | 미수급 | 미수급 | 미수급 |
| 특성 | 자산규모(+) 경제활동(+) | 자산규모(+) 경제활동(-) | 자산규모(-) 경제활동(+) | 자산규모(-) 경제활동(-) |

2. 2단계 분석: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질적 분석 결과

이 단계의 분석에서는 군집분석에 따라 도출된 8개 유형(여성 노인 4개 유형, 남성 노인 4개 유형)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빈곤 노인 인터뷰 대상자 12명(여성 노인 6명, 남성 노인 6명)과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를 수행했다. 1단계 군집분석 결과로 도출된 각 유형의 비중에 비례하여 표본을 추출하기보다는 정책적 고려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형을 오버샘플링(oversampling)했다. 즉,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1명, 고학력 비경제활동 유형 1명, 기타 주거 임시·일용직 유형 2명, 기타 주거 비경제활동 유형 2명 등 총 6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다. 남성 빈곤 노인의 경우, 자가 소유 자영업자 유형 1명,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1명, 월세 임차 임시·일용직 유형 2명, 월세 임차 비경제활동 유형 2명 등 총 6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했다.

1) 여성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

(1) 인터뷰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

여성 빈곤 노인 6명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은 <표 4>와 같다. 생애 주된 일자리는 무급가족 종사자, 단순노무, 청소원, 판매 서비스, 식당 찬모(饌母), 의류 도·소매, 화장용 연필 제조, 음식업 자영업 등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이 대다수다.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의 직종 역시 단순노무, 파출부, 청소원, 정부 제공 일자리 등 저숙련 직종이다. 6명 중 4명이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이다. 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2명은 차상위 계층으로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고, 1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표 4> 여성 빈곤 노인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 유형 | 성명 | 연령 ²⁾ (출생년도) | 노동시장 이행 양상 (*생애 주된 일자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
|--------------------|----|----------------------------|---|--------------------------|
|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 A | 77세 (1941년생) | 교육→가사 의무→취업(전자회사에서 부품 조립)→ 퇴직→취업(가스회사에서 부품 조립)→퇴직→취업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용 연필 조립)→은퇴 | 차상위 |
| 고학력 비경제활동 유형 | B | 66세 (1952년생) | 교육→가사 의무→취업(화장품 방문 판매업)→퇴직 →취업(식당 홀서빙, 찬모)→퇴직→취업(음식업 자 영업)→퇴직→취업(자동차 수출; 무급가족종사자) →퇴직→취업(장어 수입·판매; 무급가족종사자)→ 퇴직→취업(*식당 찬모)→퇴직→재취업(정부 제공 일자리)→비경제활동·실업(비정기적인 파출부 일)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 기타 주거 임사·일용직 유형 | C | 76세 (1942년생) | 교육→가사 의무→취업(*국숫집 경영)→퇴직→재취 업(파출부, 청소원; 가교 일자리)→질병→재취업(정 부 제공 일자리) | 차상위 |
| | D | 74세 (1944년생) | 교육→가사 의무→취업(*건설 현장 단순노무)→퇴 직→취업(*청소원 업무)→질병·퇴직→재취업(정부 제공 일자리) | - |
| 기타 주거 비경제활동 유형 | E | 67세 (1951년생) | 교육→취업(의류 도·소매, *판매 서비스, 취업→퇴 직→취업의 무수한 반복)→질병·은퇴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 | F | 78세 (1940년생) | 교육→가사 의무→취업(*식당 찬모)→퇴직→재취업 (가교 일자리)→질병·은퇴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2) 인터뷰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 종합

① 성장기: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인적 자본

1940년대 출생 노인은 어린 시절에 6·25 한국전쟁을 겪었고, 1950년대 출생 노인 역시 전 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출생 노인 2명만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마쳤고,

2) 인터뷰가 수행되었던 2018년 현재 연령임.

1940년대 출생 노인은 국민학교 중퇴,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쳤다. 보살핌의 부재, 가계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은 여성 노인들이 학업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했던 주된 이유였다.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나요?

“못 다녔지. 엄마가 (내가) 조그매서 돌아가셨으니까. (국민학교) 2학년도 제대로 못 다녔어. 엄마가 없으니깐은 뭐, 밥 해 먹일 사람도 없고, 학교도 또 옛날엔, 시골엔 또 멀잖아, 그냥. 그러니깐은 못 다녔지. 오빠가 농사지어 갖고는 먹고살았지. 그러니까 일하고 살림하느라고 (학업은) 크게 생각을 못했어.” -여성 노인 A.

“중학교편이 졸업을 못했어. 우리집 부자였는데, 오빠도 교편 생활하고, 아버지가 글만 알면, 편지만 쓰면 된다고 해서 안 보내 줬어요.” -여성 노인 C.

가계 경제의 어려움과 성 차별로 인해 여성 노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최선화, 1999; 강유진·한경혜, 2002; 최희경, 2005)와 맥락을 함께한다. 성장기 교육 기회의 차별은 취업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혼 전에) 전 일도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는데, 무슨 일을 해요. 있다가 일찍 결혼을 했죠.” -여성 노인 D.

② 결혼과 육아: 전형적인 가부장제

인터뷰를 통해, 결혼 경험이 없는 E를 제외한 여성 노인 모두가 적어도 결혼 초기에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세에 결혼한 F가 특별한 경우일 뿐, 결혼한 여성 노인들은 모두 19-21세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 결혼은 여성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인생 전환의 계기가 된다(강유진·한경혜, 2002).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은 여성 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 생활) 그거 뭐하러 말해, 좋지도 않은 거. 무슨 얘기를 해. 할 얘기도 없는데. 만날 술이나 좋아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었다니까. (남편이) 열심히 안 살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 고생 하잖아.” -여성 노인 A.

“그 양반은 이제, 건축 계통으로, 저거 해 가지고, 토목 기사로, 그렇게 다녔죠. 결국엔 헤어졌죠. 성격이 안 맞아요. 네, 성격이 안 맞아. 생활, 생활력이 없어요. 네, 생활력이 없어. 외부로 돌고…….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여성 노인 D.

“애를 괜히 낳았어, 내가 애를. (괜히) 시집을 가 가지고 애를 낳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신랑하고 잘살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한이 되는 거고…….” -여성 노인 F.

“우리 아저씨가 너무 마음이 좋아 가지고, 돈을 벌면, 하다못해 나라도 주든가, 뭘 저기를 해야 하는데, 지 친구들 누가 좋다고 달라고 하면, 보관증 뭐 하나도 없이 다 주는 거야. 대책이 없는 사람이지. …… (남편) 친구가 (우리집 소유의) 땅하고 뭐 팔아서 (우리집 재산을) 홀랑 다

없애 버렸지.” -여성 노인 B.

B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돈 관리 태도에 국한된 한탄이지만, A, D, F 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난다. 부정적 감정을 넘어서, 소득 능력이 부족하고,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인터뷰 대상 여성 노인 모두는 결혼 후 전업 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했고, 아이를 낳아 길렀다. 아이의 유아기와 성장기를 함께했다. 그들의 삶은 무임금 가사 노동에 종사하여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최선화, 1999). 그러나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사업 실패,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그리고 가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배우자 리스크’는 마침내 여성 노인을 노동시장에 진출하게끔 만들었다.

③ 중·고령기 취업: 장시간 노동자의 삶과 이중노동

결혼 경험이 없는 E를 제외하고, 인터뷰 대상자 여성 노인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은 32세, 40세, 41세, 44세, 55세이다.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녀의 영·유아 시기가 경과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인적 자본이 부족하고, 결혼 이후 젊은 시절에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던 그들이, 중·고령기에 좋은 직업에 입직하여 종사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의 생애 주된 일자리는 화장용 연필 조립, 식당 찬모, 음식업 자영업, 건설 현장 단순노무, 의류 도·소매, 판매 서비스 등이었다. 작업장 여건은 열악했고, 노동시간은 너무나 길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성 차별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제조업, 농수산업, 영세상업, 서비스업과 같이 주변적인 노동시장에 집중적으로 머무르게 되고, 낮은 지위와 낮은 임금의 처우를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최희경, 2005)와 같은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조립이여, 말하자면. 화장품 연필 그리는 거, 그런 거 조립하고, 연필을 만들려면 심이 있어야 되잖아. 심 만드는 거 기계로 빼서, 잘라 가지고, 나무 판을 또 떼 가지고……. 아유, 복잡해서 얘기 안 돼.” -여성 노인 A.

“그때는 (새벽에) 눈 뜨면 나가기 바빴고 밤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였다가 새벽에 남대문시장-거기 새벽장사예요. 잠 못 잘 때도 많았어요-화장실에서, 그때는 좌식(채래식) 화장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물 (손잡이) 당겨서 물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거 물 (손잡이) 당기고 있다가 줄아 가지고, 물이 (손잡이가) 당겨져 가지고 못 다 젖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여성 노인 E.

“뭘, 밥 하고 그런 거지. 찬모(饅母) 비슷하게 도와준 거지. 그때가 쉰다섯 살인가 보다. 거기서부터 쪽 20년 다 되게 있었나 봐. ……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벌어 가지고 겨우 살았지.” -여성 노인 F.

한편, 배우자의 가정폭력 여부, 배우자의 경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될 경우, 이들은 늦은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가계 경제와 자녀 양육을 홀로

깊어져야 했다. 이혼과 사별은 불행한 결혼 생활의 종결이기도 하지만, 소득원의 상실이기에 결혼의 단절이 여성 노인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최선화, 1999; 최희경, 2005)와 맥락을 함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배우자 리스크’의 본질은 가부장제 사회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하의 한국 여성 노인은 학업에 있어 성 차별을 받았고, 성 역할 분리 이데올로기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사회 구조에서(최선화, 1999) 결혼 이후 육아와 가사 의무에 전념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술, 지식, 직업 경력을 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성기에도,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이후에도, 그리고 노년기에도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건설회사. 리프트(lift), 리프트 같은 거 잡고 운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 보수는 (월) 100(만 원)이 조금 넘죠. 노동시간은 똑같아요. (새벽) 여섯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 힘들었죠. 네, 힘들었죠.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거는. …… 네, 살려니까, (이혼 후에) 애들 데리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 그 후로는 건물 청소. 시간은, 빌딩 그게 더 힘들죠. 시간이 길어. 첫 새벽에 나가잖아요. (새벽) 네 시 반에 나가. 직원들이 오기 전에. 사원들이 오기 전에 해 놔야 하니까. 퇴근은 여섯 시. 여섯 시 땡 치면, 거기서 좀 씻고, 저거 하면은…….” -여성 노인 D.

“아저씨는(남편은), 수산센터, 그런 데서 다녔거든. 새벽에 가서 뭐, 그, 저기, 차 오는 거 배차시키고, 뭐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았어. 잘살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언니들도, 오빠도, 잘사는 오빠도 돌아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 안되겠다 싶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했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조그만 식당에 취직시험을 해 가지고, 거길 내가 맡아 가지고 했지. 서울 와서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나 이도 이렇게 되고, (남편 없이) 뭐 여자가 혼자 벌어서, 조그만 거 뭐, 이거 뭐, 돈도 못 벌겠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여성 노인 F.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해도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치여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가사는 그들의 일이었다. 최희경(2005)은 이를 ‘이중노동’이라고 표현했다.

자녀 돌보는 일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어리니까 뭐, 지저분하고 엉망이지,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냥. 집도 그렇고. …… 그러면 집에 오면, 씻겨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맨 힘들지.” -여성 노인 A.

그때 출근하고 나면 아들 둘을 누가 돌봤어요?

“재들(두 아들보다 큰 세 딸)이 있으니까. 재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봐 주고. 재들(세 딸)도 그때는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어린 두 아들) 씻기고 그러는 건 저녁에 내가 가서 했지.” -여성 노인 A.

물론 이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한 경우, 안도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양육과정이 가져온 경제적 부담은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국숫집을) 마흔 넷부터 했는데, 신량이 마흔 아홉에 돌아가셨어요. ……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 사업 하다 빚 잔치를 해 갖고, 떠나고, 부산으로 도망을 가 있고, 보증금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어. …… 내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아들은 어차피 대학을 다녀, 딸은 좀 떨어지게 해 주시오, 등록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랬어. 근데 딱 붙어 왔더라고, 또.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제 사는 거여. 하루 팔면, 많이 팔면, 12만 원 팔았어. 떡국하고, 라면하고, 국수하고.” -여성 노인 C.

국숫집 정리하셨을 때 1억 원을 저축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억 저축한 거를, 찾아 갖고, (가족들이 거주할 전셋집) 2천5백 집 얻고 ……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저, **에다가 3천5백 주고, …… 그래 우리 딸 시집 갈 적에도, 그땐 2천, 서로 아무것도 안 해 주기로 하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돈이 제법 들더라고.” -여성 노인 C.

④ 퇴직 후 생계 유지: 급격한 소득 하락과 건강 악화

인터뷰 대상 여성 노인들은 모두 비자발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사의 퇴직 권고, 식당 폐업, 사업장 임대차 계약 해지, 그리고 건강 악화가 퇴직의 이유였다.

“그 사람들(새로 부임한 간부들)이 와 보더니, 다른 회사에서는 아가씨들만 하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무슨 노인네들을 쓰냐고, 그놈 새끼들 들어와 가지고 우리 더 (일)할 건데도 (못하고) 나갔다니까. 안 그랬으면 더 다닐 건데.” -여성 노인 A.

“더 하려 해도 할 수도 없고. 오래 다녔으니까 정도 들고 했는데, (일하던 식당이) 이제 폐업을 해서.” -여성 노인 F.

“거기서, (국숫집이) 화재가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건물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손 털고 나왔지. 계속 했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여성 노인 C.

“그전에 내가 이제 디스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는 치료하고 별로 아프지 않고 이랬는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좀 관찮아지는 거 같아서 치료 안 받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 그 후유증이 좀 오래 갔죠.” -여성 노인 E.

인적 자본이 높지 못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단순노무직으로 종사했던 중·고령기의 이들이 퇴직 후 노년기에 좋은 일자리를 잡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중·고령기에 있었던 교통사고와 과도한 노동으로 질병을 얻은 노인도 있었고, 근로능력이 미약해진 노인도 있었다. 퇴직 후 이들의 급격한 소득 하락은 정해진 일이었다. 이들은 급격한 소득 하락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했다. 그것도 건강이 허락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퇴직 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째 딸이 좀 벌었지. 나 그만두고 나서. …… 한 50만 원, 그것밖에 못 받았어. 그걸로 (다섯 식구가) 먹고산 거지, 그냥. 옛날,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데. ……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 -여성 노인 A.

“동사무소에 가서, 그 당시는 조건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내가 아침에 청소를

했어요, 동사무소. (새벽) 다섯 시에 가서 여섯 시까지 청소도 하고. …… 파출부도 뛰고, 애기들도 봐주고 해 가지고.” -여성 노인 B.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기초연금 나오니까, 그걸로다가……. 그거라도 해야 먹고살죠. 아무리 혼자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동안에는 이제, 기초연금 그거 가지고 생활하려면 좀 힘도 들고 그랬지.” -여성 노인 D.

퇴직 후에도 이들은 급격한 소득 하락을 보충하기 위해 일을 했다. 퇴직 후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근로자로서 일하거나 가교 일자리를 얻는 등 과거보다 다양한 방식의 노동시장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박경숙, 2003; 장지연, 2003; 김기승, 2011; 최옥금,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부족한 인적 자본,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했던 경력으로는, 퇴직 후 다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역시 단순노무, 파출부, 청소원, 정부 제공 일자리로 한정되어 있었다. 외부 노동시장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꾸려 갔던 고령자들은 노년기에도 다시금 외부 노동시장에 소속되어 힘겨운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박경숙, 2001; 2003; 강철희·유정아, 2004; 김학주·우경숙, 2004; 문영미, 2004; 윤형호 외, 2007; 방하남·신인철, 2011; 박예은·정영순, 2016)와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이들 가운데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아무도 없었다. A와 E만이 짧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는데, 퇴직 후 급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환을 청구해서 얼마 되지 않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 노년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이 일했던 시기의 국민연금 제도는 더더욱 그러했으며, 이들의 일자리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받아들일 정도의 ‘좋은 일자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연금 수급이 조합된 특성을 보이는 ‘주변적 경제활동형’(박경하, 2011), 생계 유지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장기지속근로자형’(홍백의·김혜연, 2010)의 특성을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 여성 노인 모두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해도 기초연금이 생계 유지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 여성 노인들은 삶 가운데 심각한 위험을 꾸준히 겪어 왔다. 이들은 노인이 되기 전까지 이러한 위기를 겪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았던 서비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비록 그 시절에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없었지만,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고,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었다. 이미 빈곤에 진입한 노년기 즈음에서야 이들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2) 남성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

(1) 인터뷰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

남성 빈곤 노인 6명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은 <표 5>와 같다. 생애 주된 일자리는 음식업 자영업, 건설 현장 목수, 양복 디자인·재단·봉제, 부동산 컨설턴트, 중견기업 운전기사, 농사 등이었다. 여성 빈곤 노인들이 가졌던 직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직업의 폭이 넓

고, 보유해야 하는 인적 자본도 상대적으로 높은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는 단순노무, 정부 제공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6명 중 3명이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이다. 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1명은 차상위 계층으로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고, 2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

〈표 5〉 남성 빈곤 노인 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 유형 | 성명 | 연령 ³⁾ (출생년도) | 노동시장 이행 양상 (*생애 주된 일자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
|--------------------|----|----------------------------|--|--------------------------|
| 자가 소유 자영업자 유형 | A | 79세 (1939년생) | 교육→취업(빈 병 수거)→퇴직→취업(음식업 자영업) →퇴직→취업(*농사) | - |
| 자가 소유 비경제활동 유형 | B | 73세 (1945년생) | 교육→취업(농사)→교육훈련(운전 학원)→취업(용달 차 기사 보조)→퇴직→취업(봉사단체 운전기사)→퇴 직→취업(*중견기업 운전기사)→퇴직→취업(모텔 경 영)→퇴직→취업(정부 제공 일자리)→퇴직→가사 의 무 | - |
| 월세 임차 임사·일용직 유형 | C | 65세 (1953년생) | 교육→취업(*양복 기술자)→퇴직→취업(옷 수선 자영 업)→퇴직→취업(정부 제공 일자리)→퇴직→취업(가 교 일자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 | D | 72세 (1946년생) | 교육→취업(건설 현장 노동자)→퇴직→취업(외양선 선원)→퇴직→취업(*목수)→퇴직→취업(유통 자영업 동업)→퇴직→취업(*목수)→장애·질병·퇴직→취업 (정부 제공 일자리) | 차상위 |
| 월세 임차 비경제활동 유형 | E | 75세 (1943년생) | 교육→취업(체육관 경영)→퇴직→취업(건설회사 사무 직원)→퇴직→취업(*부동산 컨설턴트)→질병·은퇴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 | F | 70세 (1948년생) | 교육→취업(공구 제작; 무급가족종사자)→퇴직→취업 (외양선 선원)→퇴직→취업(치킨집 경영)→퇴직→취 업(*포장마차 경영)→퇴직→취업(*음식점 경영)→퇴 직→취업(*고깃집 경영)→퇴직→취업(건설 현장 노동 자)→질병·은퇴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2) 인터뷰 대상자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 종합

① 성장기: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인적 자본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1945년 8·15 광복과 1950년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 출생한 노인들이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이는 낮은 교육수준으로 이어졌다. 남성이 라는 이유로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않았을 뿐,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인적 자본이라는 특성은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인터뷰가 수행되었던 2018년 현재 연령임.

“피란 다녔죠, 워. 그때는 먹고살기도 어려우니까, 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닝게, 그때는. 굶기를 밥 먹듯했당게. 썩 뜬어 가 갖고, 연명하고 그럴 때인게.” -남성 노인 A.

“국민학교 다닐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피란을 대전으로 했는데…… 나는 대전에서 같이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다시 전주로 왔어. 부모님들 있는 데로. 전쟁통에 형편없이 가족들 뿔뿔이 흩어졌거든.” -남성 노인 E.

②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 진입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인적 자본이라는 특성은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과는 달리, 매우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다는 점에서 여성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다수가 군 제대 후 20대 초반에 첫 직장을 얻었고, C의 경우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15세부터 일을 시작했다. 인터뷰 대상자 여성 노인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이 21세, 32세, 40세, 41세, 44세, 55세였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취업을 한 이후에는 그 직장의 선임들로부터 직무를 단계적으로 배워 나가는 도제교육(徒弟教育) 체제를 따르게 된다. 직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미리 익혀 직장에 들어가는 현재의 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운전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인적 자본을 높인 경우는 인터뷰 대상자 중 B가 유일하다. 도제교육이 당시 직업교육의 지배적인 체제이고,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의 직업교육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장기간 머문다는 것은 노동자의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가 풍부한 직업 경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③ 노동시장 전성기: 피땀 흘려 일했던 그 시절

고령기·노년기에 빈곤에 진입했다고 해서, 이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직무 내용과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답하는 질문이 있고, 답하기를 꺼려하는 질문이 있는데, 과거의 직무에 대한 질문은 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답하는 질문이었다.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이들은 자신의 과거 직무를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 주려 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노동 몰입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복점들이 다 기업이예요. 그 60명 정도 되는 데 가서, 인제, 시다(보조원)로 들어갔지, 인제. 그게 단계가 있어. (처음에는) 바지 시다로. 바지를 다 배우면은 인제 또 유아기(상의) 시다.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단계가. …… 양복점은 월급이 없어. 와리제. 하나 만드는데 얼마. 많이 만들수록 돈이, 월급이……(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돼.” -남성 노인 C.

“지금은 모든 게 이제 가다(かた; 髒; 틀)가 폼(form; 정해진 규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반네루(panel: 널빤지)로 나와 가지고, 일일이 삼육이면 삼육(3×6; 91cm×182cm), 이렇게 짜야

돼. …… 그때는 일당도 있지만, 이제 몇 명이서 맡아요. 맡아 가지고, 열심히 두드리면은, 그 보람이 나왔어요. 팀을 이뤄 가지고 했었거든. …… 팀은 이제 잘 아는 사람끼리 뭉쳤지. 팀을 짜 가지고 들어가면은 빌라 몇 동을 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은 야기리-야기리라고 양 쪽 가에 조립해 가지고 합판으로 쪽 올리는 게 있어요-그걸 짠다고 하고……. 수입이 좋을 때는 평상시의 한 배 반은 됐죠.” -남성 노인 D.

“직원이 한 열댓 명 돼. 저기가 다 틀려(달라), 분야가. 저, 시골 땅 한다든가, 빌딩을 한다든가, 아파트 한다든가, 단독·전원주택 한다든가, 다 분야가 틀리게(다르게) 그 저기가 따로 돼 있어. …… 땅을 사 가지고 지방 땅하고 바꾸든가, 이런 교환 작업을 많이 했어. …… 지방 땅-예를 들어서-**에 전원주택지를 샀다고, 예를 들어서. 한 천 평을 샀으면, 천 평의 가격이 한 1억 줬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 땅을 1억 5천을 치고, 올려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개발을 치는 거야.” -남성 노인 E.

A 역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특이하게도 그로서는 아버지가 위험 요인이었다. 아버지가 일으킨 사고와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아들로서의 의무는 적잖이 무거운 것이었다. B 역시 11명의 대식구—자신의 가족 5명과 처갓집 가족 6명—를 이끌어 가야 하는 사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진 채 청춘을 바쳐 일했다.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었다.

“**제과 월급 받아 가지고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어, 상당히 힘들었죠. 막내 처제 초등학교 3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총총인데, 개들을 다 어떡할 거예요. (학교를) 같이 들어갔는데 (학비를) 같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학비를) 다 주면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중학교, 한 달은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남성 노인 B.

이처럼 남성 노인으로부터 노동 몰입 경향과 강한 생계 부양자 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남성 노동자의 일 중심적 삶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의무로서의 노동, 강한 생계 부양자 의식, 장시간 노동체제의 수용, 위험 감수, 노동 몰입과 노동 중독, 가족 기억의 부재, 억압된 성찰성을 제시한 신경아(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과 선진국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업은 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둬도 곧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데 성공해서 금세 다시 일에 복귀했다. 지금은 모든 세대에 만연되어 있는, 실업으로 인한 고민, 그로 인한 생계 유지의 어려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과 교육훈련 등은 이들의 삶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역시 B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④ 가사 의무: 전형적인 가부장제에 따른 가계 경제 주도와 가사 의무 제외

남성 노인 C를 제외하고 인터뷰 대상 남성 노인 중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일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남성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던, 전형적인 가부장제가 이 시기에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가 아내 자신의 사업 실패로 인해 아이와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간 흔하지 않은 일이 남성 노인 C에게 일어났다. 전형적인 가부장제가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였고, C의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애기 낳고서, 집사람이 뭐 좀 한다고 해 놓고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서는, 빚을 저 놓고는 가출을 해 버린 거야. (아내가) 완전히 나간 거는, (아이가) 만으로 한 세 살 정도 됐을 때? 살림을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깐, 주문이 들어와도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애를 들여다 보니까. 애 깨면은 뭐 어떡해, 그건 뭐 저기……. 그리고 내가 살림을 하다 보면,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반찬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시장도 봐야 되고, 만날 그러니 뭐…….” -남성 노인 C.

⑤ 원하지 않았던 이른 퇴직: 생애 가장 큰 충격

A와 B는 다른 남성 빈곤 노인들과는 다르다. A는 79세로 인터뷰 대상 남성 노인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현역 농업인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자산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거주할 주택과 경작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B는 ‘좋은 일자리’에서 20년 동안 일했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월 소득이 높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지만, 두 노인 모두 자신과 배우자가 함께 사는 지금의 이 가구가 빈곤가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⁴⁾ A는 아직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 않았고, B는 자신의 결정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다. 이들은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충격을 겪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C는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D는 산업 현장에서의 낙상(落傷) 산업재해, E는 암 진단, F는 IMF 외환위기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했다. 생애 가장 큰 좌절이었고, 큰 충격이었다. 여성 빈곤 노인의 위험이 삶 가운데 늘 잠재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남성 빈곤 노인의 위험은 급작스럽게 닥쳐온 경향이 있다.

“그때는 기성복(既成服)이, 대기업이, 삼성이나 LG, LG패션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같은 데, 골덴 텍스, 뭐 이런 거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 많어, 거기에. 그런 회사들이 양복을 만들어. 진로에서도 양복을 만들어서 저기 했고, 뭐. 원풍, 뭐 이런 데, 다……. 기성복 만들면서 다 양복 점이 싹 없어져. 전멸을 한 거지. 대한민국 역사에는, 그렇게, 우리 기술자는 다 그렇게 돼 버렸어. 우리 여의도 가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데모하고 많이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다 보니까, 수급자가 된 거예요.” -남성 노인 C.

“제가 쉰 여덟인가, 그때…… 사고 났죠.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낙상했어요. …… 산재(産災: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도 안 됐어. 그때는(2003년) 산재를 안 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용주·책임자가) 아는 동생이었었는데, 이놈이 그냥, 내가 다치고 그렇게 하니깐, 겁이 나 갖고 애가 도망갔었어. 그, 아는 동생이, 현장 봤던 그 동생이 도망갔어.” -남성 노인 D.

4) 이러한 맥락으로 소득과 함께 주거와 자산 차원을 고려하여 소득 중심의 빈곤 지표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윤석명 외, 2017)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것이다.

“건강검진을 처음 받았어. 통증이 오니까. …… 다음날 **병원으로 가서, 그, 접수를 했거든. 그랬더니, 암으로……. 그때 당시에 암도 대장암 3기. 3년 딱 지났는데, 거짓말 같이 폐로 전이가 됐는데, …… 폐암 말기, (가슴을 만지며) 가슴 이 한 쪽을 다 드러냈어.” -남성 노인 E.

“거기서 98평짜리 고깃집을 했죠. 평촌 먹거리촌.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한 7개월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장사 잘됐는데, 하루에 250만 원, 300만 원 돌고, 잘했어요. 7개월 지나고 추석 지나니까 장사가 50%밖에 안 돼.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IMF가 시작된 거야. 거기서 4년 동안 6억 정도를 손해를 봤죠. 그래서 **에 있는 집, 시골에 있는 집, 재산 다 날라가고, 그러고 나서 2000년도 1월 1일날 집사람하고, 집사람이 집을 나갔더라고.” -남성 노인 F.

⑥ 퇴직 후 생계 유지: 생애 가장 큰 고통

고령기에 자신의 결정이 아닌 사안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 즉시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후를 잘 대비해 두어도 그럴진대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퇴직은 생애 가장 큰 충격이지만, 퇴직 후 급격한 소득 하락과 생계 유지의 어려움은 생애 가장 큰 고통이다. 일시적으로 받는 충격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시기가 이 시기다. 여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 공적 연금을 지급하는 노인은 아무도 없었다. ‘좋은 일자리’에 있었던 B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는데, 그 역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지급받아, 노년기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이 일했던 시기의 국민연금 제도는 더더욱 그러했으며,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일자리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여성 노인과 마찬가지로 남성 노인 모두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아쉬운 마음을 표했다.

“생계 유지가 그 당시에 힘들 정도로 (수입 변화가 컸지). 그 당시에 뭐, 한 달에 40-50만 원 수입 됐을까? …… 거기 점포세(사업장 임차료)를 올려 달라고 그러니까 (웃 수선 가게) 철수를 했지. 그리고 또 애기 데리고 거기서 사니깐, 소방서에서 자꾸 조사가 나와서, 소방법에 상가에는 거주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거, 고시원 가서 있었지, 애 데리고.” -남성 노인 C.

“집사람이 이제, 않던, 뭐야 그, 호떡 장사도 해 보고.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래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그럭저럭 이제 저기 하는데, 저, 이명박 대통령, 저기 할 때, ‘희망근로’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신청을 했죠. 다리 절룩절룩 하면서, 인제 가서 시키는 일 다 했어. 그래 내가 힘든 일을 많이 해 봐 가지고, 웬만한 일은, 그냥 평지에서 하는 일은, 웬만한 건 다 해요…….” -남성 노인 D.

“퇴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몸이 안 따랐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랬지. 지금도 웬만큼, 되든 안 되든, 뭐, (생애 주된 일자리였던 부동산 업무를) 한 달에 하나라도, 두 달에 하나라도 되면 할 수가 있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도 생각이 거기에 있어. …… (암 진단 이후에도) 한 두 세 건은 했잖아. 그거 말고는 못했지. 점점 더 수술이다, 뭐다, 힘들고 그러니까, 생각은 있지만은 그게 안 돼. 지금은 (그때와) 또 많이 틀리잖아(다르잖아). 사람을 잘 못 알아보면서,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억력이 엄청 떨어졌어.” -남성 노인 E.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퇴직하게 된 그 당시의 남성 빈곤 노인들은, 전형적인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연금 수급이 조합된 ‘주변적 경제활동형’(박경하, 2011), 생계 유지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장기지속근로자형’(홍백의·김혜연, 2010)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성 빈곤 노인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노인이 되기 전까지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았던 서비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빈곤에 진입한 노년기 즈음에서야 이들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D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C, E, F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빈곤 노인이 일평생 걸어 온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어떤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거쳤을 때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삼았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사자인 빈곤 노인과 직접 접촉하여 인터뷰를 수행했고, 이들의 생애 전체에 걸쳐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보다 과학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 양적 자료로부터 각 성별의 빈곤 노인 유형을 도출한 뒤, 각 유형의 특성을 대표할 만한 노인을 질적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질적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개인들의 공통된 경험과 그 의미, 즉 한국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에 관한 현상의 본질과 구조를 제시하는, 복합적 기술(記述)을 작성했다.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 가부장제 사회 기조로 인해 교육과 직업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결혼 후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는 가사 의무에 임했다. 배우자 리스크—경제 무능력, 이혼, 사별—와 가계 경제 곤란의 이유로 매우 늦은 나이에 저숙련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퇴근 후에도 집안일, 자녀 보육 등 가사 의무가 남아 있고, 자녀의 교육과 결혼 지원 등 큰 비용이 수반되는 가사 의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이때 소득의 급격한 하락과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에 진입하게 된다.

남성 빈곤 노인의 경우,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신이 주축이 되어 가계 경제를 이끌어 간다. 여성 노인이 감수해야 했던 집안일과 육아 등 직접적인 가사 의무는 부담하지 않았다. 첫 직장 이후 몇 군데의 직장을 거쳐 노동시장 전성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질병, 재해,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직업을 잃고,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여성 노인의 빈곤 위험이 삶 가운데 늘 잠재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남성 노인의 빈곤 위험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적으로 닥쳐온 경향이 있다. 이때 소득의 급격한 하락과 노후 대비 부족으로 인해 빈곤에 진입하게 된다.

본 연구는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빈곤 노인의 생애 주된 일자리와 일평생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빈곤 간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론적 함의를 갖는다. 또한 빈곤 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빈곤 노인의 생애와 노동시장 이행의 특수성, 그리고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적 위험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도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은 최소한 정부 제공 일자리에 종사하도록 하고, 일할 수 없는 빈곤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선행연구들이 빈곤 노인의 빈곤 탈피와 취업의 대안으로 노인의 교육훈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인적 자본이 높지 못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단순노무직으로 종사했던 중·고령자가 퇴직 후 노년기에 좋은 일자리를 잡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년에 이르기 전에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 교육훈련, 여가가 평생에 걸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Riley & Riley, 1986; Reclay-Mulvey, 2005; Walker & Maltby, 2012).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인적 자본이 높지 않은 현재의 빈곤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둘째, 소득 측면에서는 빈곤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남성 노인 A와 B는 자신들이 빈곤가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한국 가구는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주택연금처럼 부동산 자산을 토대로 하는 연금제도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소득을 향상시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소득과 함께 주거와 자산 차원을 고려하여 소득 중심의 빈곤 지표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윤석명 외, 2017)을 고려함으로써,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노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노인 빈곤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정책 대안은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제언이다. 첫째,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부장제 사회 기조가 완화되고, 양성 평등 사회 기조가 조성되는 것이야말로 여성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에서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여성이 아예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한국의 사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한은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이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와 정부 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노후 소득이 부족한 현실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아쉬움을 토로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정부가 노년기에 앞선 연령대의 정책 대상자에게 연금 제도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와 같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자(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제도의 가입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 역시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책적·이론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질적 분석 수행을 위해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 양상과 빈곤 진입 과정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2단계 질적 분석을 위해 인터뷰를 수행한 빈곤 노인이 1단계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다.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유형의 핵심 특성—자산규모와 경제활동—은 남성 빈곤 노인의 경우에는 모두 충족되었다. 그러나 여성 빈곤 노인의 경우에는 기타 주거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는 표본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혼인상태, 공적 연금 수급 여부, 교육수준, 근로능력 정도에 이르기까지 군집분석에서 도출한 프로파일의 모든 특성을 예외 없이 모두 충족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한경혜. (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인생전환점·삶의 맥락·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강철희·유정아. (2004).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재취업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 「사회보장연구」, 20(1): 83-116.
- 김교성·김성욱·이정면·노혜진.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297-320.
- 김기승. (2011). 연령세대별 고용형태 변화 연구. 「경제연구」, 29(2): 95-110.
- 김미혜·이현주·서미경. (2008).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한국 남성노인의 구직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8(1): 123-142.
- 김수완·조유미. (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29: 5-37.
- 김학주·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 남궁근. (2013). 「행정조사방법론(제4판)」. 파주: 법문사.
- 문영미. (2004). 고령자 취업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실천」, 4: 69-83.
- 민연경·이명석. (2014). 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23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9(2): 91-115.
- 박경숙. (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24(1): 177-205.
- _____.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경제연구」, 3(1): 103-140.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다양성과 불평등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291-327.
- 박능후·송미영. (2006).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1: 7-26.
- 박예은·정영순. (2016). 재취업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좋은 일자리 진입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

- 지정책, 43(1): 235-257.
- 방하남·신인철. (2011). 강요된 선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과 재취업의 동학분석. 「한국사회학」, 45(1): 73-108.
- 배성우·손지아·박순미. (2008). 빈곤노인가구의 특성과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2: 291-318.
- 석상훈·김현수. (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3): 99-124.
- 송인주. (2008).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 과정의 의미: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3): 497-514.
- 신경아. (2011). 산업화 세대의 일 중심적 삶: 남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 연구. 「산업노동연구」, 17(2): 239-276.
- 유경근·곽종형. (2014). 대도시 노인빈곤층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경영연구」, 1(1): 91-107.
- 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2017).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연구보고서 2017-0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형호·김성준. (2007). 고령자 재취업의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사례. 「한국행정연구」, 16(1): 1-23.
- 윤형호·황진수·임석. (2007). 서울시 고령재취업자의 직종선택의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4): 721-737.
- 이윤진·김남숙·기영화·홍성화. (2013).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은퇴 고령자 일경험의 의미: Modified Grounded Theory. 「취업교육연구」, 32(6): 133-156.
- 장지연.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 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95-121.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 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87-211.
- 최옥금. (2007).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_____.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에 관한 연구: 생애주된일자리와 가교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1): 15-31.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최희경. (2005). 빈곤 여성 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홍백의·김혜연. (2010).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별 퇴직과정 유형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291-319.
- ActivAge Project. (2005). *Overcoming the Barriers and Seizing the Opportunities for Active Ageing Policies in Europ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Creswell, J. W. (201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 Approaches(3rd Ed.)*.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譯. 서울: 학지사.
- Reday-Mulvey, G. (2005). *Working beyond 60: Key policies and practices in Europe*. Basingstoke, Hampshire: 51-75.
- Riley, M. W. & Riley, J. W. (1986). Longevity and social structure: The added years. *The Ageing Society*, 115(1): 51-75.
- Schmid, G. (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WZB Discussion Paper*, FS I 98-206.
- _____. (2007). Transitional labour markets: Managing social risks over the lifecourse. *WZB Discussion Paper*, No. SP I 2007-111.
- Walker A. & Maltby T. (2012). Active Ageing: A Strateg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 S117-S130.
- OECD. 2015. Poverty rate. OECD website, from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Accessed on 14 September 2017.
- KOSIS. 2015. 사망 원인.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검색일 2017. 9. 14. <http://kosis.kr>

- 김민호(金珉鎬): 지방공무원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관심 분야는 근로빈곤, 노인빈곤, 복지정책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방법을 활용한 근로빈곤 결정요인 분석”,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평가”가 있다(muskwood@hanmail.net).
- 조민효(趙敏孝): 2006년도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 복지, 이민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분석 및 평가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Durunuri programme on low-wage workers’ social insurance coverage in South Korea” 등이 있다(chomh@skku.edu).

투 고 일 자: 2019년 5월 24일
심 사 일 자: 2019년 8월 10일(초심), 2019년 9월 23일(재심)
계재확정일자: 2019년 9월 26일